

교육부 “에듀파인, 재산·사찰과 무관”

사업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이 오는 19일부터 일부 개통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대형 사업유치원은 “사유재산을 뺀 으려는 시도” 또는 “실시간 사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에듀파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직접 에듀파인 사용법을 공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세종 교육부 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수입 관리, 지출 품의방식 등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했다.

에듀파인 대표강사 A씨는 에듀파인에 “김출납씨로 접속한 뒤 기능별 사용방법을 선보였다. 먼저 ‘계출예산’ 기능은 자체 작성한 엑셀과 일을 업로드하면 편입을 선택하면 팝업창으로 오류를 확인할 수 있고, ‘반영’ 단추를 누르면 바로 회계시스템에 반영됐다.

A씨는 “에듀파인에서는 금융사이트를 클릭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유치원 회계 계좌의 현황과 현금 출납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출’ 단계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다. 첫 번째 단계는 ‘품의’, ‘원인행위’ 단계에서 품의 때 선택한 예산이 목적에 맞는지 최종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에 등록해둔 거래처와 계좌명이 팝업창으로 뜨면 골라서 처리할 수 있었다. 실제 지급할 금액을 결정하면 원장의 최종결정을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출결의’ 단계에서는 거래처 계좌 등을 확인하고, 각종 전자지급 등 금융결제원이 지원하는 지출 지급방식 중 결정할 수 있다. A씨는 “에듀파인 예금주명파 에듀파인 예금주명 실명확인을 사전에 체크해 투명성이 강화된 지출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오늘 시연은 에듀파인과 관련해 일부 유치원에서 ‘사유재산을 다 뺀다’는 식의 오해와 가짜뉴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능을 정확히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 국장은 “에듀파인이 시행되면 사업유치원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지만 에듀파인은 일반 회계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재산 귀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한유총이 실시간으로 회계를 감시하는 민간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에듀파인은 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절차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정보시스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유치

사업유치원 에듀파인 전면 개통 앞두고 시연회 “현 사업유치원에 안 맞아” 지적엔 “기능 개선” 감사시 자료 제출...특별감사 때만 제한적 확인

원의 회계를 감사할 때에도 자료제출을 우선 하며, 실시간 감시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에서도 회계 감사 권한을 가진 경우 제한적으로 에듀파인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기존 수기로 하던 회계방식 대신 전자로 세입과 세출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에 유치원들이 소명하기 쉬울 것이라고 봤다. 예산과 지출을 교육청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는 것도 오히려 설명하면서, “모두 원장 승인으로 업무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구현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에듀파인이 사업유치원에 맞지 않고 어렵다는 지적은 한유총 외에도 한국사업유치원협의회(한사협)와 전국사업유치원연합회(전사연)도 제기했던 사항이다. 설 국장은 “사업유치원 회계규정을 반영해 일부 기능을 개선했다면서 ‘집합교육과 전문상담을 지원하며, 진화상담센터와 원격지원까지 시도교육청과 상시 지원하고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뉴스스



봄꽃시모 2019 서초구 봄꽃 전시 홍보 판매전이 열린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청에서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전시된 봄꽃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 대동고, 개교 50주년 앞두고 교가 교체

총동창회-법인 이사회-학운위-학교장 등 합의

광주 광덕중·고와 광주일고에 이어 명문 사학인 광주 대동고도 친일 잔재 교가(校歌)를 교체하기로 했다.

개교 50주년을 앞두고 ‘친일 잔재는 청산하고 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조치다.

18일 대동고 학교법인과 총동창회 등에 따르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학생폭력운동 90주년이자 개교 50주년을 앞둔 올해가 역사적으로 뜻 깊은 해라고 판단, 학교 구성원과 동문들의 뜻을 모아 친일 잔재 청산 차원에서 교가

를 교체하기로 했다.

최근 졸업식 당일 재단 이사장과 이사진, 총동창회 임원진, 학교운영위원장 학교장과 교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달 광주시 의뢰로 광주교대 산하협력단이 친일 잔재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오랜 기간 불려왔던 귀에 익고 친숙한 교가가 친일인사가 작곡한 곡으로 판명됨에 따라 즉각 내부 논의를 거쳐 교체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인도 고속기차 운행 하루만에 고장

인도에서 자체 제작한 준고속 열차가 상업 운행 시작 하루만에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도 뉴델리에서 200km 떨어진 비라나시 차롤라 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멈춰섰다.

인도 철도부는 18일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인지 자체 결함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른 철도 차량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준고속 열차는 인도 모디 총리의 야심찬 계획인 ‘철도 국산화’에 따라 시속 160km 수준으로 종전 150km 수준의 열차 속도를 개선한 인도에서 가장 빠른 열차로 개통 첫날 전좌석이 매진되는 등 주목을 받았다.

모디 총리는 지난 14일 준고속열 개통식에서 “지난 4년동안 정직하게 인도철도를 바꾸려고 노력했다”며 “이제 인도산 철도도 큰 발전을 이루게 됐다”고 축하했었다.

인도 정부는 하루 2300만명이 이용하는 철도 산업과 관련 철로 사업으로 70km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차를 개선하기 위해 고속 철도와 준고속 철도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나서고 있다.

오로라 총기난사범, 중죄 전력에도 총기구입

지난 15일 미국 일리노이주 오로라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범인이 과거 중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총기를 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이 사건 범인 게리 마틴은 지난 2014년 3월 11일 총기소지면허(FOID)에 따라 이번 범행에 사용된 스미스앤드웨슨 권총을 구입했다. 마틴은 전 여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지난 1996년 미시시피주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총기 구입 당시 초기 신원조회에선 이같은 범죄전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범죄전력은 총기 구입 5년 후 총기 보관·휴대 허가신청을 하면서 진행된 신원조회에서 비로소 발견됐다.

일리노이주 경찰은 뒤늦게 마틴을 상대로 한 총기소지허가를 취소했지만 마틴은 구입했던 총기를 계속 보유하다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수사관들은 총기소지허가 취소 통보 후 사법기관이 마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헨리프랙트에선 이날 총격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기도회가 열렸다. 기도회에는 1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눈비를 맞으며 참석했다.

기도회를 주재한 덴 하스 목사는 이 사건을 ‘분별한 살인’으로 규정하며 희생자 유족들을 위로했다. 그는 “희생자들은 모두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었다”며 “우리는 그들의 재능과 장기를 절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 짧게 끝났다”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일리노이주 오로라시 소재 산업용 밸브 제조회사인 헨리프랙트 공장서 일어난 총격사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최소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 범인인 마틴은 범행 2주 전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과의 교전 끝에 사살됐다.

美 뉴욕 경찰, 드론 격추 권한 요구

미국 뉴욕 경찰이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드론을 격추할 권한을 부여할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뉴욕 경찰관들은 무기를 장착한 드론을 보여주는 해외 선진 활동이 테러리스트들을 자극해 ‘외로운 늑대’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 연방의회는 지난 2018년 연방정부 법집행기관에 위급 상황시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뉴욕경찰과 같은 지역 법집행기관에 이같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WSJ은 전했다.

테런스 모너핸 뉴욕경찰총장은 “뉴욕은 독특한 도시이다”라며 “우리가 보호해야 할 지역이 너무나 많다”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드론 출몰로 공항 운항이 차질을 빚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드론 출몰로 런던 외곽 게트워 공항에서 비행기 수백편의 운항이 중단됐다. 지난 15일 두바이 국제공항에서는 불법적인 드론 활동이 포착돼 비행기 이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카리카스에서 연설을 하던 중 드론이 공중에서 폭발해 대통령이 긴급 대피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